

흐르는 강물처럼

2022년 6월 5일 오전 7:34314 읽음

<단상>

어느 아동의 시니컬한 일기

어디서 캡처한 일기인지 기억엔 없다.

페이스북인지 아님 어느 밴드였는지 아무리 기억할래도 생각이 안 난다.

5월 26일자로 캡처하였는데 2013 년도에 쓴 초등학교의 일기니까

이 일기를 쓴 학생은 지금쯤은 약관의 청년일 터이다.

http://

4월 4일 요일

일어난 시각

잠자는 시각

시 분

선생님께서 일기를 7줄 이상 쓰라고 하신다.

4줄 남았다

3줄 남았다

2줄 남았다

1줄 남았다

끝이다. 도장 찍어주세요

천재데?

ENSEUP.COM

일기 쓰기 교육방침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질서정연하게 나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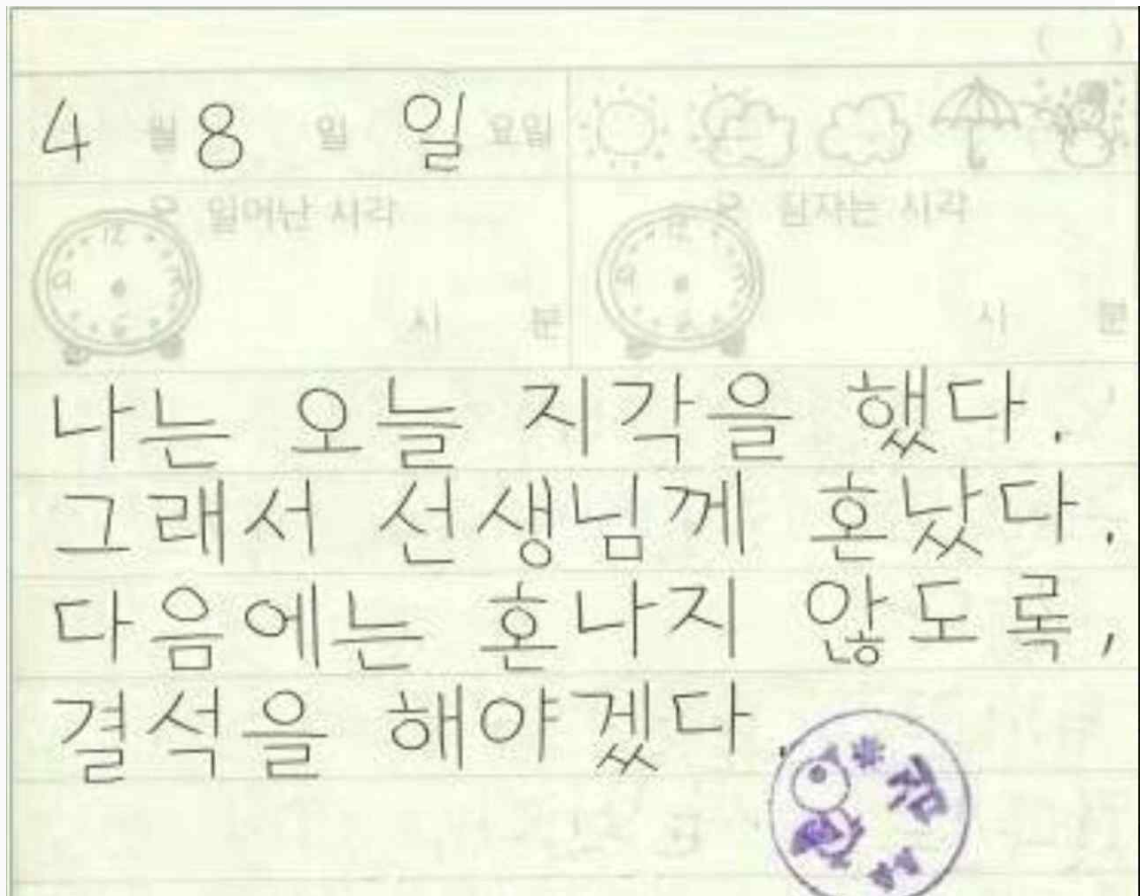
검열하는 선생님도 '천재데?'라며 감탄하신다.

교육의 질은 시간이나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대상이다.

7 줄 이상 쓰라고 한 선생님의 방침을 이 아동은 1,2,3,4.....

노골적인 기수(基數)로 표기하여 반발하였다.

아동의 착상이 귀엽고 예쁘다.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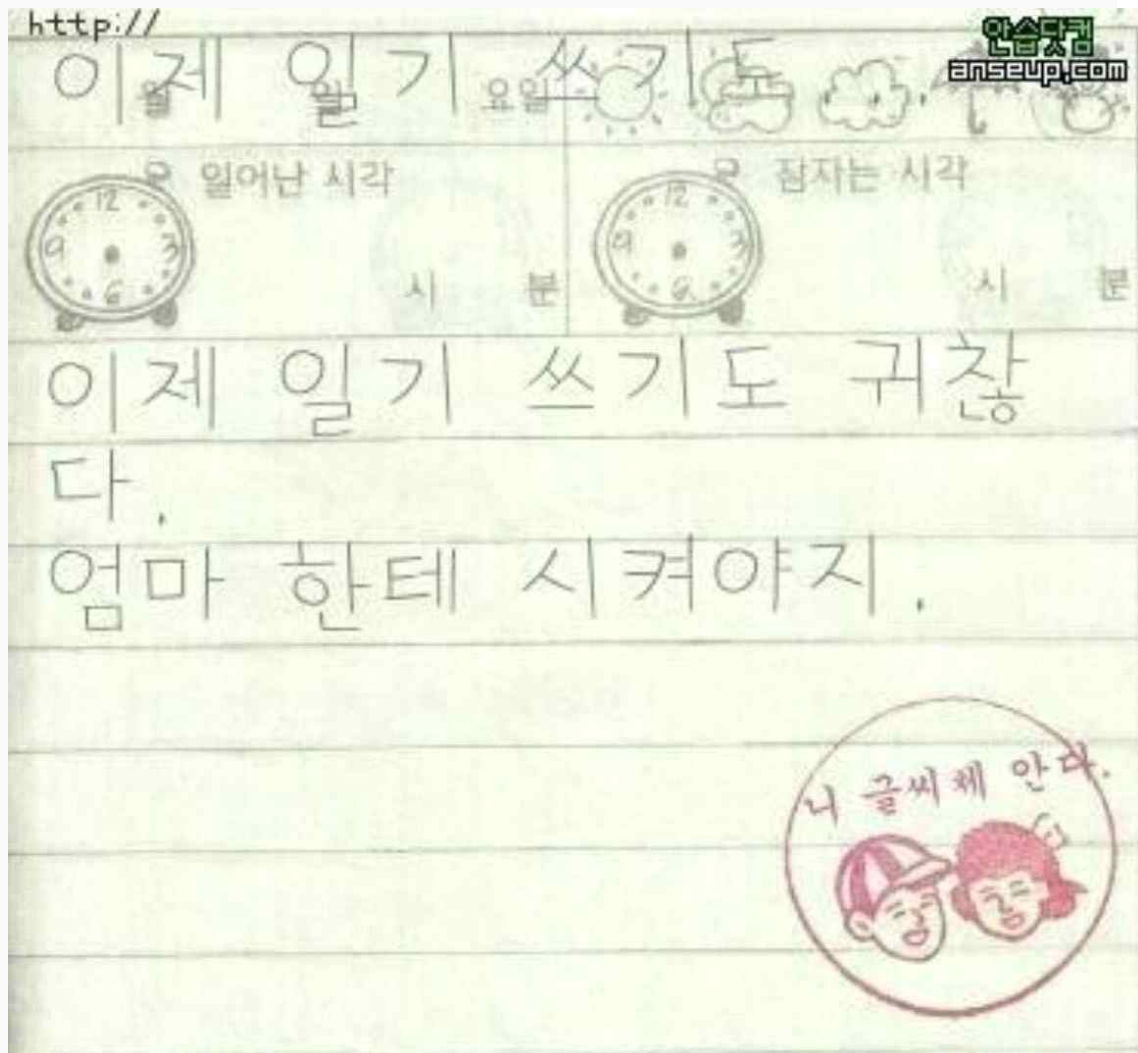


놀라운 반전의 경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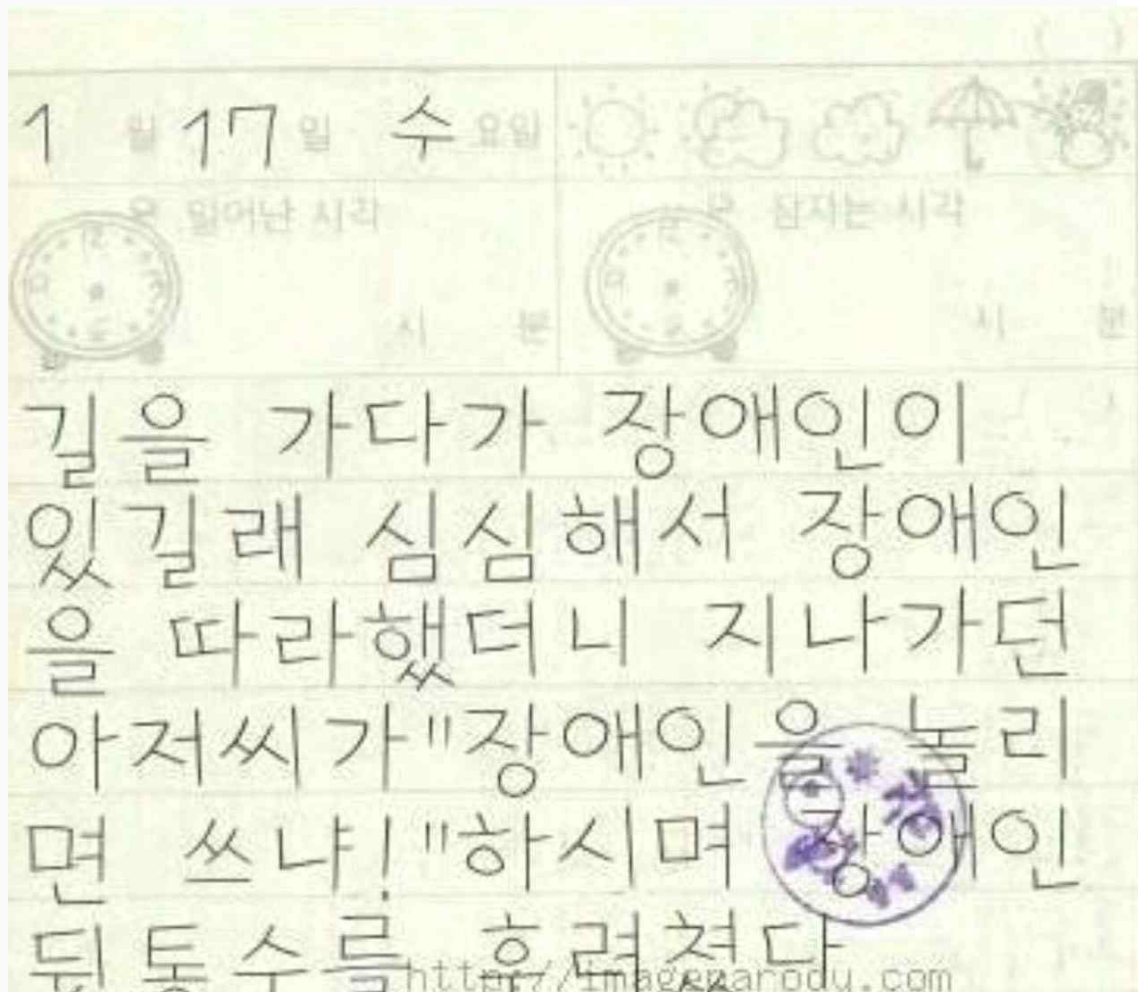
아동의 글씨체를 흉내낸, 기성 풍자 작가의 조작된 글이 아닐까?

살짝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이환천 시인의 실루엣이 얼른거린다.



엄마한테 시켜야지.
 대단히 불경스런 표현이다.
 요즘 아이들의 부모를 대하는 의식의 편린이다 싶으니 조금 걱정스럽다.
 '니 글씨체 안다' 라는 귀절까지 갇출만큼 다양한 검인 도장을 갖춘 교사....
 친필로 지적하는 '교육적 열의'를 구비하면 어디가 벗어나는가?
 억지로 일기를 쓰는 아동에게 건성으로 도장을 찍어 응대하는 교사...
 살벌하고도 삭막한 교육현장이다.



모파상의 단편 '목걸이'를 능가하는 반전이다.
 아무래도 일기를 쓴 아동이 의심스럽다.
 글씨도 반듯하고 문장력도 깔끔하다.
 무엇보다도 맞춤법이 정확하다.
 아동의 일기체에 빙의한 기성작가가 아닐까?
 진짜 어린아이였다면 문단이 주목해야만 할 천재다.

http://

날짜 몰라

요일

안습닷컴
ansup.com

일어난 시각


침자는 시각

시 분

시 분

도장이 나찍어 주슈

오늘남아라



배포가 두둑하다.
 아동과 교사 사이에 존재하는 도장의 의미.
 경위야 어찌되었든 도장만 받으면 된다는 가치관이 낭자하게 전개된다.
 마치 지식이나 교양과는 상관없이 졸업장만 취득하면 된다는,
 우리사회의 축소판을 보는 듯하다.

유월 일 요일 ☀️ ☁️ ☁️ ☔️

일어난 시각

시 분

잠자는 시각

시 분

오늘 제 아들이 아픈 이
유로 일기를 작성하지 못
했습니다. 사과와 말씀
드립니다

집에 전화해본다

권모술수.

비록 아동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긴 했지만

'사과의 말씀'과 같은 어른 말투를 인용한 부분이 재미있다.

도대체 이 선생님은 모든 의사 표시를 도장으로만 하는 것일까?

다양한 대화를 각인해 두고 있다.

해당되는 검인 도장을 찾는 작업이 더 힘들지 않을까?

비록 악필일지라도 직접 제자의 일기장에

어째서 필적을 남기지 않는지 정신감정을 해보고 싶을 지경이다.

선생님은 사생활 침해
를 하시려고 일기를 쓰
라고 하십니다. 교육청
에 알리겠습니다

일기를 억지로 쓰게 하는 막장드라마의 결말이다.

학생은 관계기관에 고발할 태세이고 교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스승과 제자의 흔적은 진작에 사라지고

교실은 살벌한 결투의 현장으로 변하는 중이다.

물론 일기를 쓴 학생도, 검인 도장을 찍은 교사도

실재하는 인물인지 살짝 의심스럽긴 하지만

오늘날의 공교육의 단면을 보는 것같아 씁쓰레한 장면이다.

오늘의 일기

2013년 10월 30일



아침으로 등갈비찜을
먹었다. 맛있다. 점심
으로 햄버거를 먹었다
. 맛있다. 저녁으로
회를 먹었다. 맛있다.
맛있는 하루였다. 이
렇게 먹어도 되네

오늘의 반성

머리와 몸이 따로 놀다



초딩일기장 (KidsDiary) for iPhone & iPod Touch

분량은 목표치 7 줄을 넘겨 8 줄에 이르고 있지만

일기치고는 최악의 일기다.

그러나 판정은 '제법이에요'이다.

교육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만해 볼 대목이다.

전시행정과 더불어 보여주기식 교육....

나라의 장래가 걸린 어린 새싹들을 어떻게 숨죽이고 있는지

몇 컷의 일기가 대변하고 있다. ☹